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忠峴福祉院

日時 1995年11月25日(土) 午後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14時 02分 監査開始)

○委員長 趙在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1995年度 兪現복지원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議政活動 및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福祉社會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土曜日 午後까지 95년도 行政事務監査에 노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事務監査 受監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忠峴福祉院 院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께 監査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社會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위한 施設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심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친인척조차도 꺼리는 정신지체인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院長 이하 關係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受監機關長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宣誓에 앞서서 만약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

法施行令 第17條第4項 第5項의 規定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院長은 發言臺에 나오셔서 宣誓를 하여 주시고 關係官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院長은 宣誓가 끝난 후 宣誓書에 署名捺印하여 저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成善慶; (宣誓)

○委員長 趙在煥; 院長은 幹部紹介를 먼저 하시고 業務報告해 주시기바랍니다.

○院長 成善慶; 저는 忠峴福祉院 院長 成善慶입니다.

(幹部紹介:總務課長 尹喆重, 庶務課長 崔南洙, 社會事業家 權熹映)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洪承采 委員; 충현교회하고 무슨.....

○院長 成善慶;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충현교회하고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충현동에서 충현교회가 始作했고 저희도 시어머님께서 충현동에서 私財를 利用해서 始作하셨어요. 그래서 충현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졌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최경희씨가 시어머니 되시나요?

○院長 成善慶;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代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충현복지원으로 轉換한 지가 영아원에서 지체아 수용.....

○院長 成善慶; 20年 되었습니다.

○李達源 委員; 20年이면 1975年 이요?

○院長 成善慶; 뒤에 또 紹介가 될 것입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託兒하면 보통 우리가 아동을 맡긴다는 뜻인데 여기 年齡別 분포도 보면 20歲 이상, 20歲 이하는 여기 안 나왔네요.

○院長 成善慶; 그런데 정신지체아이들은 나이 年齡보다 精神 年齡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25歲라도 2살짜리 行動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年齡 制限이 전부 정신 지체아 施設에서는 사실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收容施設에도 30살 먹은 사람도 5살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學校 분포도 IQ로 하거든요.

그래서 收容施設로 教室을 指定하기 때문에 託兒도 一般 委託兒童으로 생각하시면 5歲 미만, 2세 미만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것이 나이 많이 먹어서 집에 하루종일 있어서 막 부수고 그러는 아이들이 더 힘들고 어린 年齡은 오

히려 幼稚園이나 學校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學校를 卒業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더 問題가 되어서 託兒의 年齡 制限을 폐지해 달라고 강력히 市에 建議해서 그것이 설득이 되어서 年齡 制限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해서 그런 結果가 온 것입니다.

○李達源 委員; 20歲 이하는 없습니까?

○院長 成善慶;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수 있죠.

○李達源 委員; 定員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院長 成善慶; 지금 定員이 20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託兒의 명칭을 바꿔서 差別化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院長 成善慶; 그래서 여기는 알아보기 쉽게 그냥 託兒라고, 잘못 理解하실까봐 그런데 정신지체 데이케어센터, 낮에 봐준다, 참 이름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精神遲滯託兒所 그러면 兒童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는 나이 많은 먹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이름을 精神遲滯兒 晝間保護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洪承采 委員; 직업지도 현황 바로 위에, 施設長, 總務, 生活指導員, 補助員 해가지고 6名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託兒施設에.....

○院長 成善慶; 네, 託兒施設과 兼職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결국 從事職員現況은 39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院長 成善慶;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위에 직업지도 현황에서도.....

○院長 成善慶; 거기도 다 여기 있는 生活指導教師, 직보교사가 겸하고 있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洪承采 委員; 네, 알겠습니다.

○院長 成善慶; 계속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入所節次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院長 成善慶; 入所節次는 저희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市 相談所에서 相談해서 서울시에서 받으라는 통지서가 있어야 받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入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주는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영세가정 아이들도 미혼모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 주로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朴贊秀 委員; 院長님, 死亡 26名인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院長 成善慶; 그것은 대강 病院에서 入院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病院에 가서 診斷書 받아가지고 火葬處理합니다.

벽제나 뭐 이런 데 해서 그냥 뿌리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死亡率이 이것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정신지체아이

들의 수명기한을 18歲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간질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요즈음에 이제 영양도 좋고, 약도 좋고, 環境이 좋아져서 그런지 年齡이 40歲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朴贊秀 委員; 주로 간질환자가 많습니까?

○院長 成善慶; 거의 80%가 간질을 합니다. 이 정신지체아이는 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간질약을 계속 週期的으로 服用하지 않으면 자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 서울市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며칠전 그것이 어디죠? 삼육재활원 거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닌데 거기는 收容施設이기 때문에, 거의가 無緣故지요?

○院長 成善慶; 저희는 100% 無緣故입니다.

○洪承采 委員; 100% 無緣故,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가진 父母께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院長 成善慶; 아니,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있으면서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가 파출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경우에 가정이 유지될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相談所에서 여러 가지 相談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서울市에서 맡아주어야 되겠다는 아이들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더러는 父母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100% 無緣故라고 그러셨잖아요?

○院長 成善慶;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한 30%는 있을 것입니다, 父母가. 어머니쪽, 아버지쪽, 또 혹은 이모라든지 뭐 이런 친척이 있는.

○洪承采 委員; 緣故歸家라고 그러셨잖아요?

○院長 成善慶; 네.

○洪承采 委員; 緣故歸家면 지금 30%정도는 緣故가 있는데,

○院長 成善慶; 10年 동안에 56名이니까.....

○洪承采 委員; 그런데 안 찾아가는 것이지요?

○院長 成善慶; 안 찾아가려고 그러지요. 저희들은 父母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父母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洪承采 委員; 마음대로 이사해 버리고.

○院長 成善慶; 네, 데려가라고 그럴까봐 연락을 끊지요.

그렇기 때문에 緣故歸家를 우리는 굉장히 원하지요. 왜냐하면 收容施設도 모자라서 들어오는 아이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父母있는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졌다든지 그럴때는 데려가도 되는데도 안 데려가거든요. 그래도 그런 사람 사실 다 맡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체 생활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先進國같은 경우는 이 정신지체아동은 집이 아무리 부자고 백만장자라도 부모가 施設에 맡기기를 원하면 다 맡아줍니다, 日本이나 美國 그런 경우에. 왜냐 하면 이런 아이들이 하나 家庭에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정신적인 충격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형편을 못 되고 영세가정아이들만 받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趙在煥; 他 施設轉出이 안 있습니까. 10年 동안에 156名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디로 轉出시키며 어떤 사람을 轉出을 시킵니까?

○院長 成善慶; 저희 施設에서는 남자아이들을 좀 주로 轉出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남자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여자, 남자 成人들이 되어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問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남자들을 주로 이제 조금 轉出시키려고 노력해 가지고 다른 비슷한 他 施設로 했고, 그 다음에 나이먹은 사람들은 成人施設로 이렇게.....

○委員長 趙在煥; 아니 精神年齡이 낮은 사람들이 20살, 40살이 되도.....

○院長 成善慶; 그래도 옛날에는 成人施設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6·7年前까지도 兒童施設과 成人施設이 갈라져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年齡을 폐지한 것이고.....

○委員長 趙在煥; 아니. 그러니까 身體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精神年齡을 봐서 40살이든지 뭐 스물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IQ 가지고 收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院長 成善慶; 네, 이것 轉出한 것은 아주 중증장애아이들이요, 중증장애시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교육가능급 아동을 주로 데리고 있어야지 學校教育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증요양시설로 轉院됐고, 다음에 아주 어른들이 있는 그런, 이제 어른이라도 이제 한 5살에서 20살하고 30살하고 40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의 개념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施設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5살, 6살 먹은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유치원서부터 공부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年 동안에 轉出過程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10年 동안 자료를 모아서 報告를 하셨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그 동안에 이런 어떤 큰 事件이 별로 없었다는 애

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院長 成善慶; 네, 그리고 人員變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옮기기 전에는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委員長 趙在煥; 주로 教育만 시키는 쪽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돌변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他 施設로 옮겨 주고?

○院長 成善慶; 돌변사건이 아니지요. 우리 施設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장애를 가진 아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지체만 가지면 좋은데 이제 하체를 못 쓴다든지, 휠체어를 타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휠체어를 갖출 만한 施設이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네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그런 아이들이 相談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그런 아이들을 적합한 施設로 옮겨준다든지, 또 눈이 좀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는 맹인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相談할 때 혼란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적합한 施設에 옮기고, 나이가 너무 많고 우리 施設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런 成人施設로 그 전에는 옮겼습니다. 6·7年前에는요.

○委員長 趙在煥; 그런데 他 施設에 轉出한다, 156名 轉出했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院長 成善慶; 우리 施設에서 收容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兒童을, 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러지요.

○委員長 趙在煥; 주로 건강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施設로 轉出시키는 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院長 成善慶; 그렇지요.

○委員長 趙在煥; 그런데 왜 26名이라는 사망숫자는 왜 그렇게 사전에 措置를 못하고 死亡하도록 놔두었느냐 하는.....

○院長 成善慶; 10年 동안에 26名이면 死亡率이 없는 것이지요. 그 환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委員長 趙在煥; 아니, 그래도 바로 아프면 他 施設轉出을 보내는데 그래도 26名이라는 것이 어째서.....

○院長 成善慶; 26名 死亡診斷書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180명 정말 환자들 데리고 있는데 26名 死亡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李達源 委員; 1년에 2名꼴?

○院長 成善慶; 1년에 2名꼴입니다.

○委員長 趙在煥; 아니, 그래도 그렇게 중증장애인이거나 위험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他 施設에 빨리 轉出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명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인데 1명이 되든지, 2명이 되든지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院長 成善慶; 人命이 고귀하지요. 그렇지만.....

○委員長 趙在煥; 他 施設로 轉出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왜 26名이라는 희생자가 왜났느냐.....

○院長 成善慶; 아니, 그러면 뭐 죽을 지경이 된 아이를 他 施設로 轉出을 시킵니까?

○劉俊相 委員; 아니, 院長님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죽었느냐 이말이에요.

○院長 成善慶; 애네들은 이제 뇌출혈, 그 다음에 간질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원인사망이 여러 가지이고, 그리고 病院에 한두번 가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入院했다가 退院했다가 한 2,3年 동안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가 死亡하는 경우입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各 大學病院이나 綜合病院 같은 데서 臨床實驗, 소위 實驗用인 여러 가지 사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輸入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死亡者를 아까 火葬을 했다 無緣故者인데 火葬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이 社會發展을 위해서 大學病院 같은 데나 이렇게 해서 無緣故 그냥 火葬해서 냅을 달래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措置를 취해 주는 것은 院長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院長 成善慶; 그런데 조금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잔인한 것 같아서.....

○委員長 趙在煥;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院長 成善慶;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렇습니까?

○院長 成善慶; 네, 火葬證明 떼어서 火葬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가끔 緣故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父母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無緣故도 있지만 父母있는 아이들이 死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死亡했을 경우에 警察署에서 시검을 합니까, 누가 나와서?

○院長 成善慶; 그것은 안해요. 문제가 있을 때 혹시 父母가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死亡했을 경우 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委員長 趙在煥; 無緣故인 경우에는 무조건 죽으면 죽은 대로 現場에 가서 확인만 하고 가서 火葬하고 그러니까?

○院長 成善慶; 네, 그렇지요.

○委員長 趙在煥; 아무도 감독도 않고, 확인도 않고?

○院長 成善慶;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하지요.

○委員長 趙在煥; 거기서?

○院長 成善慶; 네, 無緣故인데요. 病院 醫師하고 저희하고 하지요. 洞에서 火葬證明 떼어가지고 처리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있으면.....

○委員長 趙在煥; 아니, 그래서 死亡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 일반 시민들이나 이분들이 누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警察署에서 나와가지고 전부다 死亡確認書 보고 이렇게 해서 떼어주는 것 아니에요? 死亡檢案書나 뭐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院長 成善慶; 死亡檢案은 특별한 무슨 요청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死亡檢案을 하지요, 死亡檢案한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埋葬할 때 그것이 警察署에 의무적으로 와야지 埋葬하거나 火葬하는 것 아니에요?

○院長 成善慶; 아니에요, 醫師 死亡診斷書있으면 洞에서 火葬證明해 줍니다.

○委員長 趙在煥; 警察署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院長 成善慶; 안해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委員長 趙在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院長 成善慶; 여기에서 자꾸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李達源 委員; 事故는 한 번 있었어요?

○院長 成善慶; 그것은 왜 있었느냐 하면 그 부모가 盲人 부모였어요. 알고 보니까 둘다 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盲人들이 40명씩 와서 데모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10年 키워줬는데. 그래서 그러면 마음대로 警察署에 告發하라고 해서 입회하에

屍體 檢안한 적 한 번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檢屍요?

○院長 成善慶; 네, 檢屍죠.

○委員長 趙在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警察署에서 화장터 들어갈 때 警察當局에서 뭐를 떼어가지고 가는 것이지 무조건 醫師 사망진단서 떼어가지고.....

○院長 成善慶;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세요, 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鄭善順 委員; 여기 就業이 6명이 있는데 今年에 있었습니까? 무슨 職種에 就業을 해요?

○院長 成善慶; 就業한 아이 중에 두 아이는 松坡區廳長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松坡區廳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재봉틀하는 데 就業해 있고 남자 하나는 공장에 就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月給 한 20萬원씩 받아서 개네들 통장에 돈도 꽤 모였어요. 애네들은 그래도 IQ가 70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鄭善順 委員; 就業을 한 사람들은 生活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院長 成善慶; 生活은 저희 집에서 하고 出退勤합니다.

○李達源 委員; 결혼.....

○院長 成善慶; 결혼한 아이들은 비슷한 부모를 가진 농촌 총각들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李達源 委員; 이것은 醫學的인 判斷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障礙者들끼리의 결합으로 인한.....

○院長 成善慶; 그런데 이상하게 정상적인 아이들을 분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當代에는 그것이

잠재하고 있다가 2代, 3代 때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4名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다 정상이에요. 애들이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劉俊相 委員; 정신지체아라고 그랬는데 뇌성마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院長 成善慶; 뇌성마비를 약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성마비는 완전히 누워서 똥, 오줌 못 가리고 뇌를 완전히 다친 아이들인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정박아는 지능이 조금 모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하고는 조금 性格이 다릅니다. 그래서 教育이 可能한 것이죠.

○李達源 委員; 뇌성마비는 身體的인 이상이 있는 것이고 정박아는 外向的

○院長 成善慶; 身體的인 이상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IQ가 한 2·30에서 60이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정박아들이 院長님을 보통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院長 成善慶; 할머니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아줌마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院長님 이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보통 一括的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院長 成善慶; 엄마라고 많이 부르죠.

○李達源 委員;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를 것 아닙니까?

○院長 成善慶;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李達源 委員; 그것도 教育事項 같은데 안들어갑니까? 一括的으로 동일호칭으로 부르도록.

○院長 成善慶; 가르쳐줘도 잊어버리니까 잘 몰라요.

- 李達源 委員; 됐습니다.
- 院長 成善慶; 계속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總計 表示를 안해 왔네요?
- 院長 成善慶; 363名입니다.
- 李達源 委員; 서울충현학교의 圖表에 總計 表示를 안해 놓으셨어요.
- 總務課長 尹喆重;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認可學級이 26명, 編成도 26명입니다. 學生數가 認可가 380, 編成이363, 교원 定員이 43, 現員도 43, 一般職 14, 이렇게 되었습니다.
- 院長 成善慶; 계속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教育施設로 教育監 施設認可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 院長 成善慶; 네.
- 李達源 委員; 그러면 補助金도 있습니까?
- 院長 成善慶; 補助金 있어요. 教育監으로부터 따로 있습니다. 學校 선생님이나 學校에 대한 運營費는 전부 教育廳에서

補助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無料教育이에요, 義務教育.

그래서 사실 이 學校를 처음에 제가 學校 할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자꾸 늘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우리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두 學級을 設立해서 無許可로 선생님을 임의로 採用해서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設立을 해 주겠다고 해서 認可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設立한 것인데, 지금은 가정있는 아이들이 이런 學校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죠. 106名 빼고는 전부 가정있는 아이들이 通學하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入學許可 節次는 어떻게 되나요?

○院長 成善慶; 일반 國民學校하고 똑같습니다. 3월에 입학전형 광고를 내서 募集해서 뽑는데 많이 支援하는데 教室이 모자라서 다 못뽑고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教室 擴充計劃은 있으세요?

○院長 成善慶; 그것은 教育廳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뽑으라는 定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뽑고 있죠.

○李達源 委員; 그러니까 定員을 늘리고 施設擴充할 計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院長 成善慶; 事業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벌여놓으면 고생이니깐요.

○李達源 委員; 아니, 福祉事業이라는 것은 고생을 감내하시는.....

○院長 成善慶; 그런데 뭐든지 먼저 始作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學校도 그렇고.....

○李達源 委員; 이미 始作은 해 놓으셨으니까 적절한 人力과 豫算이 支援이 되면.....

- 院長 成善慶; 그런데 施設이 있어야죠.
- 李達源 委員; 그러니까 豫算과 施設, 人力 支援이 다되면.....
- 院長 成善慶;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죠.
- 李達源 委員; 그렇게 하실 의지는 있으세요?
- 院長 成善慶;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잘하고 싶습니다.
- 李達源 委員;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아 對象者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院長 成善慶; 너무 많아요.
- 李達源 委員; 이것이 市 次元이든, 政府 次元이든 어떤 식이든 그 對象者들을 收容을 하거나 교육시킬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 院長 成善慶; 療養施設하라는 것도 못하겠다고 반납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施設 兒童도 앞으로 100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 李達源 委員; 꼭 충현복지원에서 안하더라도 다른 施設財團이 이 事業을 擴大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 院長 成善慶; 그래야죠, 특별히 필요한 것은 저희 學校가 있기 때문에 高等學校만 졸업하면 다른 施設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5살 먹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幼稚園부터 高等學校까지 敎育의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여기 年齡別로 보면 20살부터 25살, 26살 먹은 애들이 3·40名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른 데로 가면 3살, 4살 들어온 애들이 幼稚園부터 高等學校까지 정상적으로 敎育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애네들이 갈데가 없어요.
- 李達源 委員; 그러면 지금 精神遲滯兒 晝間保護所가 여기 한 군데에요?

○院長 成善慶; 지금 두 군데예요. 시범적으로 두 군데 올해 시작했습니다. 恩平福祉館하고요.

○李達源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자꾸 增設이 되어야 돼죠?

○院長 成善慶; 네, 晝間施設이 자꾸 增設이 되어서 영세한 부모들은 이런 施設에다 부탁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고 그러면 고아 안만들죠, 그런 시설이 자꾸 생기면.

그리고 이런 정신지체아이는 하루만 봐줘서 안되고 1週日 봐주고 한 달쯤 봐주다가 부모가 데려가고 또 데려다 맡기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자꾸 안 늘어나도.....

○李達源 委員; 寄宿舍 형태로.....

○院長 成善慶; 그렇죠, 이 정신지체는 그런 託兒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아이들을 收容할 수 있는 정신지체타운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精神遲滯施設을 서울시에서 시작한지가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20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3살, 4살, 5살 먹은 아이들 길러서 지금 개네들이 나이가 25살, 30살 되었지 않습니까, 개네들 어떻게 할 지 지금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큰 아이들이 마음놓고 죽을 때까지 살수 있는 그런 타운같은 것이 外國에는 다 있어요. 金泳三 大統領께서 벨지움가셨을 때도 방문하신 정신지체타운이 다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서울시에도 꼭 있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李達源 委員; 서울시 次元이 아니라 中央政府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設置해야겠네요.

○院長 成善慶;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은 아이들은 거기서 가서 저희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아이들은 결혼하고 또 그 안에 빵공장, 세탁공장, 슈퍼마켓 다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돈벌고 그것으로 살고, 모자라는 것은 政府에서 支援해 주고 그런 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렵죠.

○李達源 委員; 장기적으로 그렇게 政府 次元이든지 市 次元이든 그런 事業을 해 나가도록 촉구를 해야죠.

○院長 成善慶; 꼭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거든요.

○李達源 委員; 저희 市議會에서도 그런 方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院長 成善慶; 농아니 맹아 이런 애들은 就業이 잘 되잖아요. 정신지체아이들은 그런 타운이 꼭 필요하죠.

○李達源 委員; 네, 알겠습니다.

○院長 成善慶; 계속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李達源 委員; 물리치료사 100名당 1名씩 配定한다고요?

○院長 成善慶; 그러니까 우리는 180名이기 때문에 두 사람 配定받아서 時間表 짜서 필요한 아이들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데 1名이 100名씩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院長 成善慶; 감당 못하죠, 그래도 저희 施設에는 지체쪽으로는 그렇게 장애있는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언어치료사가 필요해요. 애들이 다 말을 못하는데 언어치료가 없어요.

- 李達源 委員; 언어치료사의 法的規定이 있어요?
- 院長 成善慶; 아직 우리 나라는 정식으로 나오는 資格證이 없는 것 같습니다.
- 李達源 委員; 係長님, 언어치료사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우리나라 現況을 說明해 주시죠.
- 院長 成善慶; 지금 물리치료사는 신구전문대학이나 專門大學에서 물리치료사 정식 資格證이 나오는데 언어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領域은 없는 것이 많아요, 음악치료사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治療가 다 필요하거든요.
- 李達源 委員; 장애의 정도를 細分化시켜서 專門的 治療가 가능하게 하도록 치료사가 擴大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 院長 成善慶; 네, 다 採用해야 되는데 人員도 配定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特殊教育을 한 사람이면 언어치료를 대강 할 수 있거든요.
- 李達源 委員; 特殊教育 資格證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실 것 아니에요?
- 院長 成善慶; 네.

.....

(報告繼續)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

(뒤에 실음)

.....

- 李達源 委員; 충현재단에는 會計擔當者가 어느 분이세요?
- 庶務課長 崔南洙; 제가 擔當을 하고 있습니다.
- 李達源 委員; 會計處理統計圖表 作成이 좀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提出한 資料에 의한 不實性 與否보다도 어차

피 계속 運營을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運營을 해오셨으면 이것이 32億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院長 成善慶; 저희가 學校하고 福祉院하고 託兒所인데 이중에서.....

○李達源 委員; 그러니까 會計全擔員을, 指摘事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왜.....

○院長 成善慶; 經理職員 運營費를 안 줘요. 總務 하나밖에 없어요. 福祉院에는 職員이.

○李達源 委員; 그래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會計處理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專擔職員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院長 成善慶;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두는 것이지요. 人件費 좀 반영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기 建議事項에 經理職員 하나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總務님 혼자서 이것 하느라고 우리 혼났어요, 80部 이것 만드느라고.

○李達源 委員; 總務님이 감당할 會計業務가 못되는 것 같은데요.

○院長 成善慶; 經理職員을 저희가 하나 임시로 두고는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監查指摘事項을 보니까 松坡區廳에서 현금 수입원 지출원 미지정해 가지고 그 지출원은 즉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 會計責任者에 대한 지정문제는 指摘事項에 없었어요?

○院長 成善慶; 이것은 書類上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혼자서 일을 하시니까 補助員이 도와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書類上 안해 냈다고 指摘해서 즉시 그냥 했습니다.

○劉俊相 委員; 충현복지원에 대해서 人件費가 63.2%가 들

어가는데 그 외에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37%는?

○院長 成善慶; 37%는 먹고 사는데 들어가지요. 반찬하고 아이들 옷 입히고.....

○劉俊相 委員; 藥값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院長 成善慶; 다 포함돼요.

○劉俊相 委員; 藥大도 들어가고요?

○院長 成善慶; 네, 물리치료비, 뭘 기름값, 우유 사먹는것, 간식비, 옷값 그것 다들어가서 그렇습니다.

○劉俊相 委員; 거기에 연관해서 먼저도 내가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취사원, 영양사 ,생활지도 이런 사람들이, 대충 영양사는 俸給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院長 成善慶; 保姆하고 똑같아요. 俸給이 56萬원인가.....

○劉俊相 委員; 公務員입니까?

○院長 成善慶; 公務員은 아니에요. 저희는 私設法人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直營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個人財產을 투자해가지고 法人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施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劉俊相 委員; 初俸이?

○院長 成善慶; 56萬원입니다.

○劉俊相 委員;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준 편이네요?

○院長 成善慶; 규정에 근거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院長 成善慶; 네.

○劉俊相 委員; 네, 알았습니다.

○院長 成善慶; 50萬원 안 많아요. 영양사 자격 가진 사람 구하려면 한 번만 나가면 1年이 돼도 못 구해요.

○劉俊相 委員; 아니, 먼저 新聞에는 어디에 근거했는지 몰라도 福祉財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最低生計費에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問題가 생겼거든요.

○院長 成善慶; 사실은 市에서 手當을 15萬원씩 우리 더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빼면 41萬원을 주는 것이예요, 國庫地方費, 그러니까 保姆들이 하루만에 나가요, 이틀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保姆離職率이 뭐 1年이면 왔다갔다하니깐 아이들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서울市에서 15萬원씩 保姆들한테 手當을 주어가지고 그것도 56萬원인 것이지요. 그것이라도 올려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李達源 委員; 係長님, 手當支給은 어디에 근거해서 支出된 것인가요?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원래에 國費하고 地方費 50%, 50% 運營費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서울市에서 運營하다 보니까 各 團體에서 施設에서 도저히 離職率이 많고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市費라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別途 手當을 저희가 豫算의 方針을 맡아가지고 手當을 新設을 해서.....

○李達源 委員; 그러니까 手當新設한 根據條項이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근거는 원래 障礙人福祉法上에 보면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支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運營費라든지 施設費에 대해서 支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率 支援하는 것은 그것도 해당 法律이 있습니다. 그 法律에 의해서 50%, 50% 이렇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요, 80%이상을 支援해야 된다 이렇게 法律이 되어 있어요.

○李達源 委員; 그러면 國費가 50%가 되고, 市費가 50%가 되면 그러면 100%인데 초과가..... 그러니까 地方費 50% 이

상이 되면 돼요?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네, 80%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達源 委員; 예산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院長 成善慶; 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仁川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서울도 하게 되었어요.

○李達源 委員; 하여튼 豫算支援은 저희가 豫算審議때…….

○院長 成善慶; 保姆들 俸給 좀더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李達源 委員; 그러니까 豫算審議를 통해서 적절한 支援…….

○院長 成善慶; 經理職員 하나 해 주시고요.

○李達源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院長 成善慶; 그리고 운전수도 하나, 病院에 가고 반찬사러 매일 가는데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버스 운전수를 짬짬이 이용하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요.

○李達源 委員; 그런데 會計處理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支援할 근거를 못 찾아요.

○院長 成善慶; 다시 잘해 들릴게요.

○李達源 委員; 이것만 봐 가지고는 어떤 근거나 어떤 支出이 필요하고, 어떤 事業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資料가 提出되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豫算增額…….

○院長 成善慶; 그것은 경리직원은 아주 없는데요. 뭐 새로 해 달라는 것인데요. 운전수도 아주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인데요.

○李達源 委員; 財團이면 財團 會計支出과 관련해서 監査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수없이 監査 指摘事項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것 어떻게 監査받으셨어요?

○院長 成善慶; 무엇이었어요?

○李達源 委員; 會計處理 그런 방식에 대해서 指摘을 계속 받으셨을텐데요?

○庶務課長 崔南洙; 會計處理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福祉院쪽, 學校쪽 잘하고 있는데 다만, 資料 만드는 過程에서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院長 成善慶; 간단하게 하느라고 그랬어요. 會計處理야 하지, 그것 안하고 어떻게 事業합니까?

○朴贊秀 委員; 朴贊秀 委員입니다. 會計處理를 잘하십니다.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市에서 支援金 問題는 款·項·目이 있어야죠, 그렇지요?

○庶務課長 崔南洙; 네, 맞습니다.

○朴贊秀 委員; 本委員이 보기에 이것은 家計簿 쓰는 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몇 月 며칠날 갈비, 雜費 이렇게 해서 收入, 안 맞습니다.

이것 款·項·目を 배워서 좀 쓰셔야지,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計數야 맞겠지요. 그러나 누가 財務監査받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提出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院長 成善慶; 저희는 몰라서 그랬어요,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朴贊秀 委員; 이것은 꼭 職員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教育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세 드시고 補助職員이 있는데 그 잠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어요?

○庶務課長 崔南洙; 네, 명심하겠습니다.

○朴贊秀 委員; 그것을 저도 죽 봤습니다만 가정일지 좀 우스운데, 됐고요.

○院長 成善慶; 우리 帳簿에는 款·項·目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朴贊秀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또 하나 여기 醫療保險料라고 해서 週期的으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醫療品이 대충 本委員이 보기에 56萬 2,300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醫療品이 대개 어떤 종류이며, 또 하나 藥品取扱은 누가 합니까?

○院長 成善慶; 看護員이 합니다.

看護員이 이제 藥을 뭐뭐 사달라고 要請을 합니다, 請求書에. 무슨 반창고, 소화제, 회충약, 무슨 어디에 이렇게 필요한 것 그런 것 하면 그것대로 사줘요.

○朴贊秀 委員; 잘하셨어요. 院長님 藥은 누가 취급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院長 成善慶; 의사선생님.

○朴贊秀 委員; 醫師는 진료만 하고 處方을 내주면 藥師가 취급하는 것이예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看護員이 藥을 請求했다고 해서 副作用이 나면 누가 책임지실래요? 醫療法, 藥師法 違反을 하고 계시다고.

○院長 成善慶; 그러면 아이들 급하게 배탈나서 까딱 까딱 넘어가는데 그런 藥師法만 지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朴贊秀 委員; 아니지요, 광고선전만 보고 배탈났으니 소화제, 머리 아프니 사리돈 이런 식으로 지금 處方하고 막 그러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院長 成善慶; 그렇지요.

○朴贊秀 委員; 안 되는 것입니다. 福祉院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물론 院長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經理社員, 社會車輛 支援해 달라, 좋습니다만 이 범주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院長 成善慶; 그러면 藥 사먹이지 말라고요?

○朴贊秀 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이 藥이라는 것이 잘 쓰면 藥이지만 못쓰면 毒이 되는 거예요.

물론 財政形便 運營上 어려우시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해서 대충했는데 아무 탈이 없었다, 다행이죠. 그러나 나중에 뒷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구를, 지금 촉탁의사가 1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면서요, 그렇지요?

○院長 成善慶; 네.

○朴贊秀 委員; 그런데 그분 오실 때는 아무 탈이 없는데 가시고 나면 또 탈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고,

○院長 成善慶; 그러면요, 갑자기 고열나고, 체하고, 설사하고, 감기들고.....

○朴贊秀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常勤醫師에 常勤醫師에, 看護師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支援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院長 成善慶; 네.

○朴贊秀 委員; 그래 그것을 저희 委員會는 이제 압니다, 처음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 課長님 社會係長님 나오셨죠?

(「네」 하는 關係職員 있음)

그런 것을 醫藥課에 의뢰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막말로 藥을 환

자가 가뜰이나 부실한 환자들인데 먹고서 우리가 대중요법 쓴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매개체를 이용해서 藥品成分 들어서 간호사들이 막 하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委員長 趙在煥; 잠깐만요, 會議가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委員님들의 質疑內容에 대해서 다름 잡음이 필요없어요. 딱 對答할 내용만 對答하고 자기가 對答하지 못할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야지,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되겠어요? 무슨 監查場이 이래요.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答辯하시고, 答辯을 자기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해도 되겠느냐고 저한테 意見을 묻고, 그렇게 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院長 成善慶; 알겠습니다.

○朴贊秀 委員; 院長님, 그래서 醫療保險內譯 좀 알려주시고,

○院長 成善慶; 醫療保險料요?

○朴贊秀 委員; 네, 醫療保險料가 支給이 됐더라고요.

○院長 成善慶; 네.

○朴贊秀 委員;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이 되어 있는지?

○院長 成善慶; 그것은 우리 庶務課長님이 좀 설명하셨더라고요.

○朴贊秀 委員; 담당이 누구십니까?

○院長 成善慶; 總務님께서 醫療保險 擔當이 되십니다.

○朴贊秀 委員;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總務課長 尹喆重; 괜찮습니다. 政府에서 그렇게 職員들 醫療保險을 職員들이 본인들이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職員들이 내는 것만큼 사업주가 또 그만큼 내야 됩니다, 醫療保險

組合에다가. 본인이 내는 그 봉급비율에 의해서 본인이 내는 것 거기에다가 사업주가 그만큼을 내야 돼요.

○朴贊秀 委員;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醫療保險料가....., 學生法人이니까,

○總務課長 尹喆重; 運營主가 그것을 내야 됩니다.

○朴贊秀 委員; 그리고 법인에서 또 내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總務課長 尹喆重; 아니지요, 運營主가 내야되는 것을 이제 政府에서 補助해 주시는 것입니다.

○朴贊秀 委員; 그러면 두 번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醫療保險料가?

○院長 成善慶; 반씩요, 50%씩.

○朴贊秀 委員; 그 金額이 이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醫藥品 56萬 2,300원에 대한 內譯이 나오니까?

○院長 成善慶; 네, 나옵니다.

○朴贊秀 委員; 그것은 資料로 좀 주세요.

○院長 成善慶; 네, 드릴게요.

○朴贊秀 委員; 이상입니다.

○李達源 委員; 市에서는 監査 안 받으셨어요?

○院長 成善慶; 네, 市에서는 監査 안합니다. 區廳에서 합니다. 區廳하고, 監査院.

○李達源 委員; 財團하고 支援은 區廳所管인데......

○院長 成善慶; 學校는 教育廳에서 監査받고요.

○李達源 委員; 係長님, 市 補助金이 나가면 監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우리가 支援하는 施設에는 法上 施行令에 區廳長 市·郡守한테 委任이 되었습니다. 法的 委任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補助金 나갈 때도 區廳을 통해서 區廳에서 또다시 施設로 나가고 그렇니다.

○李達源 委員; 그런데 監査院 監査를 또 받으셨어요?

○院長 成善慶; 네, 監査院 監査도 가끔 받습니다.

○李達源 委員; 그것은 財團監査예요, 아니면.....

○院長 成善慶; 전체를 다 받습니다.

○李達源 委員; 福祉法人監査는 區廳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院長 成善慶; 네, 福祉院 監査는 區廳이 돼 있고요.

○李達源 委員; 네, 財團監査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監査院 監査?

○院長 成善慶; 財團하면 학교, 복지원 다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監査院 監査에 보호작업장 부담운영 총 면적 託兒所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작업장으로 150 坪 지은 建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호작업장을 하고 밑에 교실 남는 것을 託兒所로 사용했더니 그것을 허락을 받고 하라고 그래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李達源 委員; 建議事項은 무엇입니까? 市議會에 대한 建議事項이에요?

○院長 成善慶; 아니, 그냥 이 메모지에 돼 있길래 저희가 그냥 적었습니다. 뒤에 종이가 붙어있더라고요, 建議事項.

○李達源 委員; 監査資料에 다 建議事項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요.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이것을 作成한 요령을 企劃擔當官室에서 이러 이러한 事項을 하라해서, 作成을 잘 못하시니까 그 품을 맞추다 보니까 그 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院長 成善慶; 페이지가 있길래 거기에다 기록했습니다.

○李達源 委員; 썼으면 報告를 하셔야죠.

○院長 成善慶; 그래서 지금 醫務補助員, 運轉技士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被服費가 1년에 한 아이에게 4萬9,000원 주거든요. 요새 바지하고 운동화 하나 사려고 해도 3萬원이고 바지 하나 값이..... 그러면 운동화 하나하고 스웨터 하나밖에 못하고, 물론 이웃돕기 들어오는 헌옷도 입히지만 애들이 요새는 헌옷 안 입으려고 그래요. 개네도 매일 TV 보고 그래서

○李達源 委員; 精神障礙者라도?

○院長 成善慶; 그러면요, 개네들도 TV 매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쁜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올려 주십사고, 公共料金도 모자라고요. 公共料金は 저희가 한 달에 水道費, 電氣費를 150萬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27萬원인가 그렇다고 해요, 公共料金 한 달에 내는 金額이.

그리고 영구정착촌 이것은 아까 성인장애 얘기한 그러한 施設이 필요하다는 內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法人現況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수고하셨습니다. 충현복지원에 대한 業務報告를 지금 院長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院長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하십시오.

洪月杓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洪月杓 委員; 洪月杓 委員입니다.

지금 院長님 報告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만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만큼 그 福祉施設의 의미를 社會人들에게나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더 뜻있게 하려면 정확성과 공개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본인의 뜻을 피력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監査를 받았습시다만 여러 가지 會計處理나 報告書 書類作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점이 많습시다. 지금 院長님께서 여러 가지 일하시고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실지 書類에는 미비된 것이 있다고 설명도 계셨습시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쓰신 것만큼 그만큼 인정을 받는것이 福祉施設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 놓으시고도 세인들로부터 行여 誤解를 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확성과 공개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會計處理 作成도 많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報告書에 의해서 캐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확성을 기하는 意味에서 質問을 하고 싶은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豫算 5項에 年度別 運營現況 있죠? 94年度, 95年度 해서 32億으로 總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自體負擔같은 같은 것이 죽 있는데 아까 전부 無料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自體負擔은 法人에서 負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별도의 自體收入이 있습니까?

○院長 成善慶; 自體收入은 없고 여기 寄附金品이라고 했죠,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寄附金입니다. 物件은 환산을 안하고 寄附金은 그냥 篤志家들이 주는 寄附金 그 額數입니다.

○洪月杓 委員; 寄附金은 6,400 나와 있거든요, 제가 質問한 것은 寄附金이 아니고 自體負擔이.....

○院長 成善慶; 自體負擔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하냐 하면 政府에서 주는 돈은 어디 어디에 쓰라는 項目이 指定되

어서 나옵니다. 한 폰도 우리 福祉院 自體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總務님이 지금 俸給을 받고 계신데 다른 데에서 院長도 하시고 훌륭한 經歷을 가지고 계시지만 他 經歷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月給을 56萬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70萬원, 80萬원을 드린다고 하면 그 差額을 自體負擔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公共料金도 公共料金으로 轉換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돈 10원 한 장이 나와도 이것은 반찬을 사라, 이것은 전기 값이다, 이것은 물리치료비를 써라, 그렇게 해서 나오지 어디 모자라는데 補充할 돈이 없기 때문에 自體負擔이 없이는 施設이 運營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自體負擔은 모자라는 데를 補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額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理事님들도 負擔하시고 또 가끔 無記名으로 우리한테 온 라인으로 돈을 부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해서 自體負擔으로 우리가 充當을 하고 있고, 寄附金은 그 뒤 細部內譯을 보면 거기 누가 얼마, 國民學生에서 15萬원, 서울市長님이 55萬원 명절이면 갖다 주신돈 그런 것인 寄附金으로 잡고 있습니다.

○洪月杓 委員;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自體負擔이 法人負擔인지, 아니면 어떤 收益事業이 이제 생각 같아서 없을 것 같은데 自體負擔이 있기 때문에.....

○院長 成善慶; 이것은 그렇게 생기는 돈이죠, 法人에서 負擔할 능력이 없습니다.

○洪月杓 委員; 그리고 아까 會計處理 하는 전담직원이 그동안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95年度 豫算을 요구할 때 그런 業務를 누가 봅니까?

- 院長 成善慶; 總務 한 분 계시잖아요.
- 洪月杓 委員; 그러면 94年度, 95年度 32億원을 補助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려면 年度初에 그 前年度末이 된다든지 94年,95年 事業計劃書하고 豫算編成 內容이 서울시로 들어가야 되겠죠?
- 院長 成善慶; 물론이죠, 이것은 學校 것까지 다 包含된 것입니다.
- 洪月杓 委員; 저는 지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공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워낙 95年度만 보는데 94年度까지 합해서 32億원이 나왔기 때문에 94年度, 95年度 事業計劃書하고요, 그것에 따른 豫算編成 그 內容을 서울시에 올린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것 한 부 提出해 주세요.
- 院長 成善慶; 저희 장부에는 款·項·目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없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洪月杓 委員;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委員長 趙在煥; 朴贊秀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 朴贊秀 委員; 朴贊秀 委員입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院長님은 뭐 專攻하셨습니까?
- 院長 成善慶; 梨大에서 국어국문학과 專攻하고 한국 대학 特殊教育 했습니다. 大學院이요. 放送局에도 좀 있었습니다.
- 朴贊秀 委員; 네, 알았습니다.
다방면으로 社會學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쭙보는데요, 지금 현재 물리치료가 100名當 1名씩 配定되어 있죠?
- 院長 成善慶; 네.
- 朴贊秀 委員; 그런데 물리치료할 때 자극 주는 것이라든지

특수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院長 成善慶; 있어요.

○朴贊秀 委員; 지금 施設 가지고 됩니까?

○院長 成善慶; 모자라죠, 補充할 것이 있어요.

○朴贊秀 委員; 요즘 新粧費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극을 해서 전자파로 때리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治療하면서 副作用난 일 없습니까?

○院長 成善慶;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朴贊秀 委員; 患者가 예를 들어서 기절했다든가, 왜냐하면 대개 간질을 에필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단순발작진 정제를 투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患者가 과량 투여했을 때 그 후에 오는 후유증, 또 미량 투여했을 때 藥效 미발현, 이런 것이 問題가 되기 때문에 藥師가 꼭 必要하다는 것을.....

○院長 成善慶; 그런데 간질약만은 저희가 그렇게 안합니다. 醫師 處方에 의해서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소화제, 아스피린, 설사약 이런 것 하죠, 간질약은 꼭 醫師 처방에 의해서 하고 指示에 의해서 합니다.

○朴贊秀 委員; 그분이 1週日에 한 번씩 오시지 않습니까?

○院長 成善慶; 아니요, 精神科로 갑니다. 醫療保險 다 惠澤이 되거든요.

○朴贊秀 委員;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간질로 해서 쓰러졌다 말입니다. 순간발작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處置하십니까?

○院長 成善慶; 안정을 우선하고요.....

○朴贊秀 委員; 안정을 하려면 약을 투여 안하고 그냥 두는

것입니까?

○院長 成善慶; 저희는 약 투여 안해요.

○朴贊秀 委員; 그냥 放置하고 있어요?

○院長 成善慶;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病院으로 가든지 그러죠. 절대로 손 안 땁니다.

○朴贊秀 委員; 그래서 사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약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醫師가 處方을 제대로 해 주셨더라도 藥師가 含量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本委員이 強調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參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在煥; 劉俊相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劉俊相 委員;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지겹다 하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社會奉仕나 福祉는 제 생각인데 아주 信仰的인 次元에서 해야 제대로 奉仕가 되지, 院長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뭐가 없다, 부족하다 이러면 실지 말해서 굉장히 지치고 限界點에 도달한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宗教的인 次元, 信仰的인 차원을 가지고 이런 事業을 하셔야겠다, 절대 營益社業이 아니고 전부다 돈 들어가는 事業이고 골치아픈 事業 아녘니까, 福祉事業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32億원이 市에서 補助한 것하고 國家에서 補助한 것하고 합친 것입니까?

○院長 成善慶; 教育廳.

○劉俊相 委員; 아, 教育廳하고.

○院長 成善慶; 教育廳 補助가 더 많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러면 教育廳에서는 몇 %나 해 줍니까?

○院長 成善慶; 100%요.

○劉俊相 委員; 아니, 32億원 중에서.

○庶務課長 崔南洙; 사업명을 보면 충현복지원, 서울충현학교, 주간탁아원 이렇게 세 部署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충현복지원 豫算하고 比率은 확실히 여기서 計算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서울충현학교는 教育廳 豫算으로 全額 支援을 바탕서 學校運營을 公立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리고 福祉院은요? 福祉院이 보니까 12億원 아납니까. 94,95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市에서 支援해준 豫算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庶務課長 崔南洙; 約 50%, 50%나 됩니다.

○劉俊相 委員; 年間 3億원을 補助를 해준다는 그 얘기 아납니까?

○庶務課長 崔南洙; 그렇습니다.

○劉俊相 委員; 이것은 계속 補助가 될 것 같고 자꾸 부족해서 寄附金하고 自體負擔으로 해서 보니까 95年度 9月 현재한 1億원 가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資料에 보면. 그런데 이 寄附金이나 自體負擔 돈이 每年 이 정도 들어와야 運營이 될 것 아납니까,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寄附金이나 自體負擔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運營하실 計劃이예요?

○院長 成善慶;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죠.

○劉俊相 委員; 결국 福祉次元에서 굉장히 힘이 드실텐데 이런 것이 고정적인 歲入 部分이 없기 때문에 이런 部分을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係長님 앉아 계시지만 執行部하고 상의를 해서 고정적인 歲入 部分을 確保를 해놔야 돼요. 이런 部分들은 寄附金이나 自體負擔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물리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산다고 할지 고정적인 歲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使用을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人件費 준다거나 經常費로 쓰게 되면.....

○院長 成善慶; 人件費는 안 들어갑니다.

○劉俊相 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福祉 運營이 결국 안 된다는 얘가지요, 빚만 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執行部하고 運營하시면서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院長 成善慶; 네.

○劉俊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在煥; 鄭善順 委員 質疑하십시오.

○鄭善順 委員; 아까 말씀하시기를 언어치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報告書에 보니까 1,000件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院長 成善慶; 어디 있어요?

○鄭善順 委員; 여기 施設 運營.....

○院長 成善慶; 그것은 물리치료사들이 겸해서 한 것을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鄭善順 委員; 물리치료는 2,500件이 있고, 언어치료라고 있는데 아까 院長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院長 成善慶;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鄭善順 委員; 運營現況 여기에 두 번째에 있어요.

○院長 成善慶; 그것은 물리치료사가 언어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鄭善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治療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院長 成善慶; 필요하기 때문에 資格證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언어치료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資格證 얘기였고, 물리치료사가 언어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鄭善順 委員, 됐습니까?

○鄭善順 委員; 네.

○李達源 委員; 그늘진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社會的 차원에 있어서의 支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寄附金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는 收入인데 寄附金 實績이 계속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院長 成善慶;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企業體에서 굉장히 自願奉仕를 많이 하거든요.

○李達源 委員; 企業體 篤志家를 많이 확보를 해 나가셔야지요.

○院長 成善慶; 삼성에서 굉장히 많이 오세요.

自願奉仕者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自願奉仕者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教育도 좀 시키고 이렇게 철저하게 안내할 수 있는 要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施設에 와가지고 흡족한 서비스를 못하고 간다고요.

○李達源 委員; 外部 自願奉仕者를 管理할 수 있는 要員이 있어야겠네요?

○院長 成善慶;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식당 같은데 365日오십니다, 自願奉仕者들이.

교회나 천주교 계통에서 10名씩 짝을 지어가지고 하루도 안 빼놓고 오세요. 와서 밥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무슨 쌍용이나 이런데서 新入社員들 教育에다 이 코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오십니다.

○李達源 委員; 교육코스에 들어가면 教育費 받으셔야겠네요.

○院長 成善慶; 그냥 와서 하시지요.

○李達源 委員; 아니, 그쪽의 필요성에 의해서 教育을 하는 것이니까 財政收入도 늘릴 겸.....

○院長 成善慶; 노력봉사,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시니까요.

○李達源 委員; 하여튼 여러군데에 寄附金 말하자면 企業들의 이윤의 사회환원 이런 차원에서 障礙者福祉法人이라든지, 각종의 老人福祉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企業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部分을 잘 인식하셔가지고 企業篤志家들이 많이 확보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市議會라든지 市가 支援하고 협조해야 될 事案이 있으면 기탄없이 와서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支援을 해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院長 成善慶; 그리고 한 말씀 더, 제가 싫증이 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성복지재단 아까 業務日誌를 보니까 아까 院長님 말씀한 대로 삼성재단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福祉財團치고는, 企業에서 福祉財團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하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事業費를 要請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補助金이 얼마 내려오는 것인가 이것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教育廳 豫算이 잡힌다는데 教育廳에서 전체 豫算이 어느정도 내려오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院長 成善慶; 이쪽 삼성복지재단 관계는 우리 後援金 담당하시는 權憲暎 선생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社會事業家 權憲暎; 삼성복지재단에서는 93年度 後半, 94年度 後半해서 2회를 저희가 받았는데 1,700萬원 정도 받았습시다.

○委員長 趙在煥; 합쳐서 그렇습니까?

○社會事業家 權憲暎; 2年 합쳐서 1,750萬원정도 되는데 현재는 삼성복지재단에서는 福祉館의 靑少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施設에서는 아무래도 또 人力이 부족하다보니까 社會事業家나 이런 專門人力이 같이 福祉館에서는 프로그램개발하고 그러니까 훨씬 프로그램이 낫잖아요. 더 좋아지는데 그 施設과 福祉館을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때문에 施設에서는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福祉館에 이시는 社會事業家들이 10名이면 10名, 5名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내는 것과 施設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年은 받았는데 3年째는 못 받았습시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취학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의 무료한 그런 時間들을 채우기 위해서

같이 現場學習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教育資料 같은 것을 위해서 돈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사랑 큰 나눔이라는 후원권으로 해서 올해초부터 그 돈을 支援을 받아서 현재 거의 1,800萬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아이들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전에 아이들이 社會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社會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企業體에서 연수생들이 많이 오는데 연수생들이 돈을 따로 준비 안해 오고 協力奉仕를 하겠다고 오지만 저희가 施設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協力奉仕는 매번 해도 유리창을 매일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現場學習을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어디 무슨 롯데월드 민속관을 간다든지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800萬 원 정도가 今年에 後援金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삼성전자에서?

○社會事業家 權熹暎; 네.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後援金 들어온 것이 총 4,400萬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일반개인들이 또 후원금 들어오는데, 4,400萬 원이 計定에 나오지 않습니까, 寄附金으로? 삼성전자에서 1,800萬 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 또 주로 後援金을 내 놓습니까?

저는 많은 社會事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運營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國民學生들의 관광코스를 정하듯이 그래가지고 福祉院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가면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그런 줄 알고 있

는데 그러면 상당한 後援金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4,400萬원 중에서 1,800萬원은 삼성전자에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 안된 部分은 어디에서 주로 이번에 後援金이 募金이 되었습니까?

○總務課長 尹喆重; 그것이 名節때, 秋夕때 이런 때 이웃돕기로 많이 들어옵니다.

各 교회에서 주시고, 또 機關團體에 個人도 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名節 때 이렇게 들어오지요, 이웃돕기로.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그만큼 院生들이나 學生들한테 많이 또 그대로 베풀어주시니까 마찬가지로 되겠지만요.

○總務課長 尹喆重; 네.

○委員長 趙在煥; 그리고 教育廳 豫算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庶務課長 崔南洙; 네, 約 10億원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市 豫算이 아까 3億원하고 總 13億원이 全體豫算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國家豫算 말고 市하고 教育廳에서 나오는 豫算.

○庶務課長 崔南洙; 아닙니다, 지금 서울 충현학교 部分만 約 10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충현학교만?

○庶務課長 崔南洙; 네, 그리고 충현복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豫算 3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아까 院長님 말씀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나요?

○庶務課長 崔南洙; 지금 서울 충현학교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公立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全體豫算을 받아서 運營하고 있는데 이제 충현복지원쪽이

부분 부분적으로 아까 豫算 한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부담 때문에.

○委員長 趙在煥;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職員들 俸給이 대단히 낮다, 아까 院長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總務部長님이라고 그러셨죠?

○庶務課長 崔南洙; 제가 庶務課長 일을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庶務課長님이신가요, 總務課長이신가요?

○庶務課長 崔南洙; 저는 學校쪽의 庶務일을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실례지만 아까 56萬원의 月 給與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院長님이. 그러면 手當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 외에?

○總務課長 尹喆重; 手當이 이제 기말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3個月마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3個月마다 本俸의 100% 그래서 그것이 年間400%이고, 또 정근 수당이 이제 1년에 100%입니다. 그래서 1월에 50% 주고, 7월에 50%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福祉手當이라고 해서 福祉手當이 20%가 나옵니다. 전부 이제 本俸에 대한 20%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56萬원은 전부 本俸이 아니고, 本俸은 32萬 5,000원 이렇게 됩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러니까 諸手當을 전부 합친 金額.

○總務課長 尹喆重; 네, 다 합친 金額입니다.

○委員長 趙在煥; 受領額이 56萬원입니까?

○總務課長 尹喆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그것 너무 했는데요.

○總務課長 尹喆重; 家族手當을 배우자만 1萬원 나와요.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이 안 나오고 政府에서 정해주는 대로밖

에 저희는 처리를 못하지요.

○委員長 趙在煥; 그러면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今年度の職員들 俸給明細書 그것을 복사를 하나 하셔가지고.....

○總務課長 尹喆重; 몇 月 것을?

○委員長 趙在煥; 今年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個人別로 이 사람 무슨 手當, 무슨 手當 해서 合計 얼마 그것을 좀.....

○總務課長 尹喆重; 個人別로요, 號俸 따라서 또 다 틀립니다.

○委員長 趙在煥; 하여튼 號俸은 거기다가 표시만 하면 제가 볼수 있기 때문에.....

○總務課長 尹喆重; 號俸別로 해 들릴까요?

○委員長 趙在煥; 네, 號俸別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처우가 그렇다면 상당히 問題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社會福祉事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영·유아 保育政策에 대한 討論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전혀 도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이제 婦女福祉館, 老人社會福祉館 이런 데에서 豫算들을 가지고 가서 큰 프로그램을 開發해 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아주 의지에 차 있고今年度 福祉豫算이 21.8%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현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院長님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추호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

서 그래도 福祉事業에 대한 뭐랄까, 누가 아까 잘 표현하셨습니다만 너무 지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使命感을 가지고 福祉事業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委員長님, 물론 사명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支援下에 사명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무작정인 헌신을 要求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係長님, 企業體의 篤志家들 혹시 市쪽으로 依賴가 오지 않아요? 福祉施設 法人과의 連繫를 依賴해 오는 그런 事例가 없습니까?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그런 것은 없고요, 가끔 機關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추석때라든지 명절 같은 때는 물어봅니다. 어느 어느 施設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가 즉 그 施設을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企業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현복지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收容施設입니다. 收容施設이기 때문에 일반 利用施設이 있습니다. 利用施設은 주로 아까 얘기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開發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利用施設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收容施設은 원래는 收容한 자에 대해서는 國家에서 地方自治團體에서 완전히 사실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李達源 委員; 다 못해 주니까 企業體들이 이런 法人에 寄附金を 줄 경우에 稅金 혜택 같은 것을 주죠?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물론 稅金 혜택 줍니다.

○李達源 委員; 係長님, 그런 部分들을 法人자체적으로는 企業體들과의 連繫가 그렇게 쉽지 않을테니까 官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선해 주시고 連繫를 시켜주는 努力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알겠습니다.
- 委員長 趙在煥; 朴贊秀 委員 質疑하십시오.
- 朴贊秀 委員; 朴贊秀 委員입니다. 業務日誌는 總務課長님이 決裁하시죠?
- 總務課長 尹喆重; 네.
- 朴贊秀 委員; 經理는 經理部長님이 또 있습니까?
- 總務課長 尹喆重; 없습니다.
- 朴贊秀 委員; 그러면 總務課長 밑에 經理擔當이 있습니까?
- 總務課長 尹喆重; 네.
- 朴贊秀 委員; 왜냐하면 業務日誌를 한 번 보시면 죽 쓰셨는데 今日的 業務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야유회 간 경우도 있고 방문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松坡區廳에 決裁맡으러 간다든가 하실 때는 누가 나가는지 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職員出張狀況 해서 松坡區廳 갔으면 庶務課누가 갔다, 總務課 누가 갔다 이래야죠. 項은 있는데 안 써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入金되고 나가는 것 있죠, 轉出. 그것이 業務日誌하고 맞아야 總計原帳이 맞죠, 그렇죠?
- 總務課長 尹喆重; 네.
- 朴贊秀 委員; 業務日誌를 죽 보고 金錢出納簿를 보니까 찾기 바빠요. 擔當者 아니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監查資料라든가, 아니면 院長님이 보실 때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장부를 꾸며주십사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尹喆重; 앞으로 是正하겠습니다.

○李達源 委員; 마지막으로 隘路事項 없으세요? 지금까지 죽 거론되었던 것으로 마무리 지을까요?

○院長 成善慶; 아까 부족하다고 자꾸 제가 너무 강조한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經理職員하고 운전수 奉仕者要員 그런 주로 인적사항에서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람 가지고 20年동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있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在煥; 아까 그리고 俸給明細書를 제가 資料로 要請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俸給明細書가 한 장이 죽 나와서 도장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今年度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特別市議會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 및 受監하여 주신 同僚委員님과 忠峴福祉院 院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께 監査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실시한 行政事務監査에서 도출된 問題點 등을 院長이하 關係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是正措置하여 환자들에게 便益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忠峴福祉院의 行政事務監査 및 제5일차 監査를 마치고, 第6日次 監査는 月曜日 10시에 實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他)

<15時 30分 監査終了>

○出席監查委員

趙在煥 鄭鎮澤 文龍子 朴德基
朴時河 朴贊秀 劉俊相 李達源
崔炯華 洪承采 文八卦 鄭善順
洪月杓

○專門委員

金南中

○被監查機關參席者

保社環境局

再活支援係長 陳熙庸

忠峴福祉院

院長 成善慶

總務課長 尹喆重

庶務課長 崔南洙

社會事業家 權憲暎